

## 키프로스의 전력사업 현황

### 1. 개요

국토 면적 : 9,251km<sup>2</sup>  
 인구 : 74만명  
 수도 : 니코시아  
 기타 도시 : 파마구스타, 리마솔  
 언어 : 희랍어, 터키어, 영어  
 통화 : 키프로스 파운드, 터키 리라  
 환율(미 달러대) : 0.47  
 국민총생산(GNP) : 75억 3900만 달러  
 주파수 : 50Hz  
 전압 : 240V  
 1인당 전력사용량 : 3,429kWh

### 2. 일반 사항

키프로스는 지중해에 있는 섬 중에서 세번째로 큰 섬으로서 터키 남쪽으로 약 75km, 시리아 서쪽으로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섬의 크기는 최고 길이 225km, 최고 폭 100km이다. 키프로스는 국토의 대부분이 나무가 없는 평지이며, 북쪽과 남쪽에 산이 있다. 이 나라는 항구적인 강이 없으며, 민물 지표수(地表水)가 적다. 경제는 아직 농업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과거 수출상품으로 주요 외화획득 자원이었던 구리(銅)와 기타

암석 광물은 크게 감소하였다. 관광사업이 점차 주요 외화수입 자원으로 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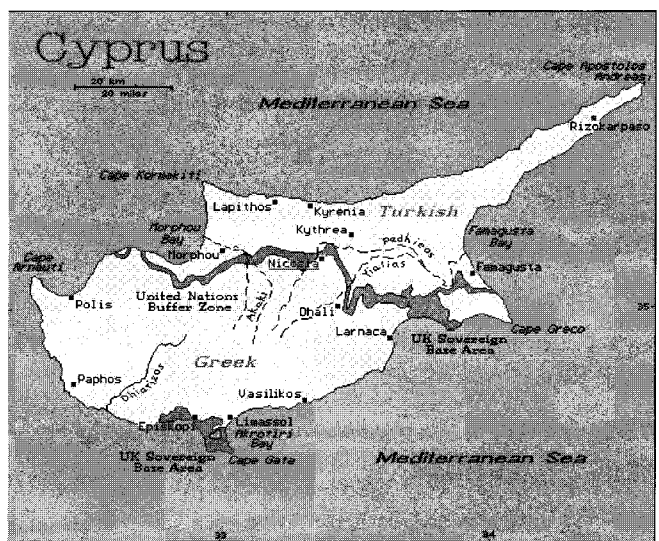
20세기에 들어서도 키프로스는 어려운 정치의 역사를 겪어오고 있다. 1925년에 키프로스는 로잔 조약으로 인한 협상 결과 영국의 직할 식민지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주민들의 관심이 독립을 선언하도록 고조되었으며, 이것은 영국을 축출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테러 활동을 유발하게 되었다. 오랜 협상 끝에 1960년에 독립이 선포되긴 하였으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희랍계와 터키계 키프로스인들이 서로 권력을 쟁탈하려는 일촉즉발의

정치적인 혼란만을 남기게 되었다. 계속되는 격렬한 충돌은 거의 내전에 가까운 상태로 이어졌으며, 이와 같은 사태는 국제연합(UN)의 중재를 불러

왔다. 결국 1974년 여름에 이 섬 공화국의 북부 3분의 1을 터키군이 점령하여 북키프로스 터키계 주민 공화국을 선포하였으나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 나라는 소위 "그린 라인"에 의해서 분할되어 있으며, 키프로스의 정치적인 상황은 극단적으로 미묘한 상태로 남아 있다.

### 3. 전력사업 개황

이 섬에서 사용되는 전기는 섬 전역에 대한 전력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1952년에 설립된 반(半)국영 기업체인 키프로스 전력공사(EAC)가 그 대



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이 전력회사는 정부의 일반적인 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공업 및 관광성 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그렇지 않은 부문에 대하여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EAC는 몇 년간 북부 키프로스에 전력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검침과 사용전력의 요금징수를 거절당하였다. 이 “정치적인 전력” 협정은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EAC가 제대로 된 전력회사의 고객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터키가 관장하는 지역은 처음에는 EAC 판매전력량의 20%를 점유하고 있었으나 북부에 새로 설치된 발전소가 대부분의 부하를 흡수하게 됨으로써 1995년에 판매전력량은 약 3%로 감소하였으며, 1998년에는 요금징수가 안된 판매량이 560만kWh로서 EAC 판매전력량은 0.2%로 더욱 감소하였다. 북부 키프로스의 전력소비량은 연간 6억kWh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AC는 1998년말 현재 두 개의 유류 연소 스팀발전소—모니(3만kW×6)와 테켈리아 B(6만kW×6)—와 모니에 설치된 네 개의 가스터빈(3만750kW×4)으로 구성되는 69만kW의 총설비용량을 가지고 있다. 테켈리아는 1998년에 EAC 생산전력량의 75%를 약간 넘게 생산하였으며 그 해에 생산과 판매가 모두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98년에 EAC는 전년도에 비하여 9% 증가한 29억 5400만kWh

의 전력을 생산하였으며, 요금을 징수한 판매량은 1997년에 비하여 10%가 증가한 26억 2900만kWh였다. 침두수요는 전년에 비하여 8.5%가 증가한 57만 7천kW였다. EAC는 1995년까지는 겨울에 침두부하가 발생하였으나 이제는 여름철에 침두부하가 발생하고 있다.

#### 4. 고객 및 판매전력량

EAC는 1998년말 현재 전년에 비하여 2.4%가 증가한 35만 9865명의 기사용 고객을 가지고 있다. EAC의 종류별 전력판매는 주택 34%, 상업 40%, 그리고 산업 21%이며, 그 나머지는 관개(灌漑) 및 가로등이다.

#### 5. 전기요금 및 가격 결정

1998년 한해동안 EAC의 kWh당 평균요금(부가가치세 및 정부보조 제외)은 처음 4.8센트에서 11%가 떨어져 4.287센트가 되었다. 이것은 연료비 감소를 반영한 것이다.

#### 6. 송전 및 배전

EAC의 송전 시스템은 132kV 및 66kV 그리고 배전 네트워크는 11kV로 운용되고 있다. 1998년 말 현재 132kV 가공선로 221km, 132kV 지중선로 24km, 66kV로 운용되는 132kV 선로 204km 그리고 66kV 선로 392km를 가지고 있다. EAC는 44개의 217만

6천kVA의 송전용 변전소를 운용하고 있다. 배전 시스템은 11kV 선로 3,981km와 저압선로 케이블 6,697km를 운용하고 있으며 배전용 변전용량은 172만 2천kVA이다. 송배전(T&D) 네트워크 손실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998년에 4.9%였다.

바실리코스의 새 발전소 건설은 EAC의 첫 220 kV 송전시스템 구성과 니코시아 남쪽의 주요 변전소 신설을 동반하게 된다. 1997년 8월에 GEC 알스툼은 바실리코스의 145kV 변전소에 대한 1500만 에큐(ECU: 유럽 공동시장에서 유통되는 유럽통화단위)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새롭거나 또는 최근에 완료된 송전시스템 격상과 개량 프로젝트에는 파포스까지의 회선과 그 지역내의 세 개소의 변전소와 알람브라 인근의 새 132kV 변전소와 니코시아의 새 변전소가 포함된다.

계통운용에 있어서 EAC는 새 원방 감시제어계통(SCADA)과 통제센터를 1997년에 완성하였으며, 응찰서는 1993년에 사전에 자격을 획득한 공급자들로부터 접수하였다. 중앙통제센터는 세 곳의 지역 배전센터의 지원을 받게 된다. 1999년 3월에 터키당국은 터키 본토로부터 북부 키프로스 전력을 공급하는 100km에 이르는 해저 케이블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다고 보도되었다. 1998년 여름에 1억 5천만 달러 내지 2억달러의 이 프로젝트는 남부 키프로스에도 전력을 공급

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처음 공표되었으며, 터키 관리들은 이와 같은 새로운 연계를 희랍과 터키간의 전력문제에 있어서의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넉지시 암시하였다.

### 7. 새 발전소들

1993년에 EAC는 인도의 기기공급자 BHEL로부터 두 기의 6만kW 유류 연소 발전기를 공급받아 가동시킴으로써 데켈리아발전소 확장 프로젝트를 준공시켰으며, 1995년에는 모니에 두 기의 3만 7500kW 가스터빈을 유럽인 가스 터빈(EGT)와 토마센으로부터 공급받아 설치하였다.

1993년 12월에 EAC의 다음 발전소는 리마술 인근의 남쪽해안 바실리코스에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이트는 두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는 13만 kW 발전기를 여섯 기까지 설치할 수 있는 면적으로서, 이것이 모두 설치되

면 키프로스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가 된다. 첫 두 기의 발전기에 대한 입찰이 1995년 중반에 이루어졌으며, 영국의 모트 유뱅크 프리스의 기술지원을 받았다. 처음 두 기의 발전기는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2000년초에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두번째 두 기는 2004년에 그리고 세번째의 두 기는 2008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첫 두 기의 발전기 설치의 공사비는 2억 2500만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바실리코스 1&2의 보일러는 오스트리안 에너지 앤드 엔비론먼트에서 그리고 터빈/발전기(T/G) 세트는 ABB가 공급한다. 영국의 발포 비티와 현지 파트너인 사이바르코-라코보의 조인트벤처는 토목공사의 계약자이다. 발전기는 두 종류의 연료 사용이 가능토록 설계되었으나, 처음에는 중유를 사용하게 된다. 1998년 5월에 EGT는 바실리코스의 3만 8천kW 프레임 6B 가스터빈을 수주하였다. 이

발전기는 자력기동(自力起動) 및 비상용 설비로서 1999년 6월에 준공되었다. 바실리코스 1&2 준공후 2년 이내에 EAC는 모니의 3만kW 발전기 3대를 퇴역시킬 계획이다.

### 8. 장래의 전망

심각한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AC는 북부 키프로스의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와의 전력관계를 능숙하게 처리하고 있다. 전력회사의 민영화나 구조조정에 대하여 알려진 전망은 없다. 또한 민간 발전소 개발에 대한 어떤 전망도 없다. 그러나 바실리코스 발전소의 성공적인 준공은 다음 10년간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EAC는 규모는 작으나 빠르게 성장하는 섬의 독립적인 전력사업의 특권을 의심할 여지없이 가능한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UDI 「Country of the month」 1999.9.2.)

## 인도— 원자력발전사업에 대한 의욕과 문제점

### 1. 원전 추가건설에 80억 달러 소요 예상

카이가 원자력발전소가 1998년 9월에 남서부 인도에서 발전을 개시하였을 때 이 나라의 원자력 관련 기관

들은 특별한 우월감으로 충만하였다. 카이가는 카르나타카 주에 있는 22만 kW의 설비로서 인도의 자체 설계로 건설된 일곱번째 원자력발전소이며, 한편 정부 관리와 과학자들은 이것이

인도가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추진시킬 수 있다는 기술적인 역량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에서 원자력발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원자력 에너지는 전력이 부족하고 현재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인도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가소유의 원자력발전공사(NPC)의 회장 겸 대표이사인 Y.S.R. 프라사드씨는 “우리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당인 바라티야 자나타 당(BJP)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 1998년에 NPC의 예산을 1990년대 중반에 비해 두 배가 넘는 2억달러로 대폭 증액하였다. 이것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신임을 나타내는 손쉬운 표시방법이기도 하다. NPC는 현재 인도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운전하고 있다. 그러나 NPC와 원자력발전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하고 더 많이 발전할 것을 원하고 있다. 현재의 원자력발전은 인도 전력공급의 2%에 불과하다며 원자력발전 옹호자들은 이 비율을 10% 또는 그 이상으로 올리기를 원하고 있다. NPC는 2000년에 3개의 원자로를 준공시키고, 그 후에 12개를 더 건설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최소한도 80억달러가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 만성적인 발전설비 용량의 부족

인도는 만성적인 전력부족문제를 안고 있다. 전력사업계의 추정에 의하면 첼두수요시에 수요가 공급전력을 12%~1200mKW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발전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중에는 다른 나라의 평균적인 전압저하에 의한 정전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진 부문도 있다. 건설공기가 지연되고, 공사비가 추가되며, 그리고 비효율적인 사업 수행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NPC에 대한 평가이다. 사고의 발생 또한 빈번하여 순조로운 사업 진행을 어렵게 만든다. 뉴델리 당국의 Y2K(컴퓨터 2000년 연도인식 오류) 태스크 포스도 NPC는 새 천년으로의 전환에 대비가 되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규제에 대한 간과(看過)는 이것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최근에 자금공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NPC의 의욕적인 사업확장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무엇보다도 인도의 원자력발전 프로그램은 건전하지 못하게도 격리된 상태에서 운용되고 있다. 비밀스럽게 장막으로 가림으로써 안전과 책임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원자로 설계는 19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인도는 캐나다 사람들이 건설한 연구용 원자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플루토늄을 사용하여 핵 장치를 폭발시켰고 캐나다는 인도의 원자력에너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갑자기 철회하였다. 또한 뉴델리 당국은 그때 이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입장은 안전과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선진국들의 기술적인 향상으로부터의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 3. 전력생산에 총 1차 에너지의 60%를 소비

많은 인도 및 외국 분석가들은 원자력 산업을 고립시키고 있는 장막을 어느 정도 제거하는 것이 원자력에너지 산업을 크게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인도가 원자력을 계속해서 개발하기를 원한다면 장막을 제거해야만 보다 가격이 효율적인 원자료를 건설할 수 있는 입증된 기술을 입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장막을 제거한다는 것은 1998년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소름끼치는 지하핵실험을 교환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친 핵무기 프로그램을 분명하게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원자력산업의 구조와 매니지먼트를 완전히 총점검하여야 한다”라고 독립에너지 컨설팅 기업인 타타에너지 연구소의 이사 라젠드라 K. 파초리씨는 말하고 있다. “만일 그들이 이 사업의 확장에 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개방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덧붙여 말한다.

1998년에 원자력발전소의 생산전력량은 112억kWh에 이르렀으며, 이것은 과거 3년동안 40%가 증가한 것이다. 1999년에 정부는 3억 3천만달러를 원자력에너지 프로그램에 투입하였으

며, 이것은 태양, 풍력 및 바이오가스 와 같은 비재래식 대체에너지 개발에 8300만달러를 사용한 것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만일 인도가 에너지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원자력발전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프라사드씨는 역설한다. 이제 오염을 발생시키는 석탄을 더 많이 연소시키거나 수입되는 유류와 가스에 더 이상 의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국내산 석탄은 이미 인도의 전력 생산의 70%를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프라사드씨와 같은 주장자들이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는데 드는 비용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 4. 사고의 빈번한 발생과 발전 출력의 미달

건설된 원자력발전소는 NPC가 처음 기대하였던 것보다 출력이 부족하다. 많은 원자력발전소가 설계용량보다 훨씬 작은 용량으로 운전되고 있다. 남부 도시 마드라스 인근의 두 개의 발전소는 건설이 뒤죽박죽이 되어 말썽을 일으켜 설계용량 23만 5천kW보다 훨씬 작은 각각 17만kW의 출력용량으로 운전되고 있다. 카이가의 원자력발전소는 건설중 콘크리트 격납건물이 붕괴되어 공기가 지연되는 바람에 3년이나 늦게 임계에 도달하였다. 전반적으로 인도의 원자력발전소는 출력

과 출력가능용량을 비교할 때 세계 최악의 성능을 시현하고 있다.

많은 사고발생은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뉴델리 인근의 한 원자력발전소는 1993년의 화재가 일어나 근무자들은 핵반응을 중단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몇 년 후에는 방사성폐기물이 공공 용수로(用水路)에 방류되었고 최근에는 한 원자력발전소가 기밀(氣密) 시스템의 부조(不調)로 발전소 운전이 정지되기도 하였다. 홍수와 중수누설도 문제로 대두되었다.

#### 5. 공개되지 않는 원자력발전소의 실태

인도는 원자력발전산업에 대한 규제 기관으로서 원자력규제국(AERB)을 가지고 있다. 규제국은 NPC의 대표 이사인 프라사드 씨와 원자력무기 프로그램의 책임자를 포함하고 있는 원자력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게 된다. 이 규제국은 그의 성실성과 독립성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구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강력하게 결속된 원자력에너지 동지애로 이루어진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다.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이 기구의 책임자로 있었으며,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원자력엔지니어인 아디나라야나 고팔라크리산씨는 이 고립된 관계는 잠재적인 문제들을 그럴싸하게 설명하

는데 “신중하게 이용되고 있다”라고 말한다.

외국의 관측자들의 접근 또한 막고 있다. 인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수행하는 원자력설비에 대한 안전평가를 받지 않았다. IAEA의 대변인 데이비드 키드씨는 인도의 원자력에 대하여 “우리들은 유지관리의 품질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있으며, 기본설계의 건전성에 대하여 큰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1998년에 인도는 세계원자력발전사업자협회(WANO)의 팀이 한 발전소를 방문하도록 겨우 허용하였으나 방문결과는 비밀로 남아 있다.

#### 6. 30년이 경과한 원전의 폐쇄 여부가 문제

인도의 원자력 사회는 앞으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된다. 봄베이 인근에 미국이 건설한 30년이 경과한 원자력발전소 두 기를 계속해서 운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가지고 이미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NBC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제작한 노후된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였다. 그러나 고팔라 크리산씨는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을 사용한 이들 설비는 폐쇄되어야 마땅하다고 믿고 있다.

많은 관측자들은 인도가 덜 자본집약적이며 잠재적인 문제가 보다 적은

수력발전과 같은 대체에너지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보아 경제적인 감각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있다. “만일 정부판단에 어떤 합리성이 있다면 원자력 프로그램은 포기되어야 한다”라고 인도의 원자력 프로젝트에 대한 오랜 반대자인 프라플 비드와이씨는 말한다. 원자력 프로그램이 포기될 것으로

는 보이지 않는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변화를 요구한다고 회의론자들은 말한다. 그러나 자금부족으로 묶여 있게 될지라도 BJP는 원자력 프로그램이 죽어버리게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대신 인도의 원자력발전분야는 뉴델리의 핵무기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영광의 배지를 달고 서투르

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판가들에게 있어서 인도의 원자력발전소는 영광의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교만의 상징으로서 서 있게 될 것이다.

(자료: 「Business Week」  
1999.11.15)

## 인도네시아—외국인투자자들과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간의 분쟁

### 1. 전력공급 계약규모 150억 달러

인도네시아 국영전력회사와 외국의 다국적 기업간의 150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전력공급계약에 대한 매우 입맛 쓴 싸움은 점점 더 가열되면서 인도네시아 경제에 폭넓은 손상을 입히려고 위협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법원에 이 나라에서 준공하게 되는 첫번째인 대규모 독립 발전소인 페이톤 에너지와의 전력 매매계약이 수하르토 시절에 그의 측근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무효로 해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롭고 위험한 전략은 핵심적인 외국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결코 어렵게 하는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제 금융제공자의 접근을 가로막게 되어,

세계에서 가장 큰 몇몇 회사들을 추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 2. 인도네시아전력공사(PLN)의 판매단가 : 약 3센트/kWh

외국회사가 국영 전력판매회사인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의 장기간의 전력구매보증을 받고 발전소를 건설하는 독립발전 프로그램은 몇 번 어려움에 맞닥뜨리기도 하였다. 첫번째 바람은 루피아의 화폐가치가 아시아경제위기의 시작으로 폭락한 1997년에 불어닥쳤다. 현재 PLN의 전력판매 가격은 1990년대 초 달러 우위의 계약협상으로 민간발전전력이 받게 된 평균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kWh당 약 3미국 센트이다.

그러나 분쟁은 PLN과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큰 몇몇 민간 발전회사들 사이에서 벗어나 점점 확대되고 있다. 민간발전회사들은 그들의 정부로부터 40억 달러를 용자받았으며, 이들 정부는 만일 계약이 취소된다면 몇 10억 달러씩의 손실을 입을 입장에 놓여있는 것이다.

### 3. 페이톤의 첫 1개월분 청구 금액: 5천만달러

인도네시아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를 거부하고는 있으나 이 문제는 1999년 10월말 대통령선거 후에 구성되는 새 정부가 당면하게 될 가장 시급한 문제의 하나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고집스러운 유권자들은 수하르토 시절의 부패로 인한 잘못된 거래는 폐기되어

야 하며 외국으로부터의 부채는 줄여야 마땅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외국정부들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하여 계약을 지상(至上)의 의무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력을 가하였으며 당초의 조건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금융상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어느 쪽이 이 문제를 얼마만큼 밀어붙일 것인지의 여부가 인도네시아 경제의 불안정한 상태를 초래하는 정도의 관련이 될 것이다.

이 분류는 1999년 10월초에 PLN이 가장 큰 전력계약자인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GE)과 에디슨 미션 에너지, 일본의 미쓰이 그리고 몇몇 인도네시아 현지의 파트너들과 구성된 컨소시엄인 페이톤을 제소함으로써 확인되었다. 이 소송은 페이톤이 계약을 뇌물로 매수하여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래를 무효화할 것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페이톤은 1994년에 전력매매계약(PPA)을 체결한 후 이스트 자바에 25억달러를 투입하여 페이톤 I 발전소를 건설하였다. 이 발전소는 1999년 8월에 첫 1개월분으로 청구금액 5천만달러의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PLN은 지불을 이행하지 않았다.

#### 4. 연쇄적인 소송의 제기

PLN의 지불 불이행에 대응해서 컨

소시엄은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말한다. 컨소시엄은 인도네시아의 계약 불이행을 들어 국제중재패널에 자체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에디슨 미션의 에드 멀러 사장은 10월 13일 기자들에게 모든 부패주장에 대하여 “단호하게 부인”하였다. 그는 페이톤의 현지 파트너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계약 항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PLN의 페이톤에 대한 소송은 앞으로 많이 발생할 소송의 첫번째 사례에 불과하다. 전력공사의 간부는 다른 전력매매 계약자들에게 대하여도 유사한 접근방법이 택해질 것이라고 귀뜸하고 있다. 그들은 많은 프로젝트의 계약금액이 부풀려짐으로써 인도네시아의 정치적으로 잘 연결된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특정 프로젝트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인도네시아의 민간 전력 공급자들 중 다른 주요 투자자들에는 독일의 지멘스, 영국의 파워젠 그리고 일본의 미쓰비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 5. 민간 전력프로젝트: 27개

독립발전 프로그램은 1990년대 초에 수하르토의 별떼같은 측근들의 흥미를 끌어들였다. 실질적으로 27개 민간 전력계약 전부에 수하르토 전(前) 대통령 또는 각료들의 인척이 개입하였으며, 실질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해

서 선정된 프로젝트는 하나도 없다. “프로젝트를 승인받는데에는 매우 강력한 정치적인 뒷받침이 있거나 수하르토 가족의 일원(一員)이 당시 팀에 소속되어 있어야만 하였다”라고 PLN의 전(前) 사장인 지탱 마르수디씨는 말한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덧붙여 말하고 있다.

틀림없이 페이톤도 지배 소집단에 관계하고 있다. 페이톤의 현지 파트너들에는 수하르토의 딸과 결혼한 사람을 형제로 두고 있는 하심 조조하디쿠 수모씨와 상급 각료인 지난자르 카르타사스미타의 형제인 아구스 카르타사미타씨가 포함되어 있다.

#### 6. 약 10억 달러가 과다 계상되었다는 주장

PLN의 아디 사트리야 사장의 선임 고문으로서 이 회사의 구조개혁 노력에 협력하고 있는 존 스토크씨는 페이톤이 친분관계에 도움을 받은 것을 받고 있다. 그는 페이톤의 공사비가 유사한 발전소에 대한 국제기준과 비교할 때 “약 10억달러”가 부풀려져 있다고 말한다. 이 부분은 부패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국제기준과의 차이를 “바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PLN이 그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30년간 kWh당 평균 6.6센트로 구입토록 한 페이톤의 전력매매 계약을 보면 그 정도 규모와 형태의 발

전소에 대한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벤치마크(가치판단의 기준)의 거의 두 배”라고 말한다.

페이톤은 그와 같은 비교를 반박한다. 페이톤은 또한 잠정적으로 전력의 가격을 절반으로 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PLN은 여기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PLN의 스로카씨는 그와 같은 제의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 7. 국제 금융기관의 개입

PLN과 페이톤 간의 분쟁은 심각하기 이를 데 없으며, 컨소시엄 멤버에 소속된 두 나라의 정부도 막대한 신용보증을 함으로써 여기에 개입되어 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15억달러의 손실을 입을 정도의 금액을 미국수출입은행, 미국해외민간투자공사와 일본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에 공여하였다. 미국수출입은행은 1999년 10월 15일에 5억 4천만달러에 이르는 45개의 상업자금공급자의 채무를 떠맡게 되어 있다.

수출입은행의 개입은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투자에 있어 리스크가 무엇인가를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다. 이 기관은 한계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수출입은행의 개입이 없으면 상업자금공급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들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회생(回生)하는 시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프

로젝트들이 되는 것이다. 수출입은행은 코멘트 요청에 반응을 보이지 못하였다.

## 8. 인도네시아 정부의 발뻘

외국 정부들과 전력회사들은 인도네시아 당국에 대하여 1년 이상 협상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이것은 회사들과 PLN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러나 외국 정부들은 인도네시아 당국에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다. 1999년 7월초에 일본, 미국 및 독일의 수출신용기관 대표들은 재무장관 밤방 수비안토 사무실에 정식으로 정부당국이 이 문제해결에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막대한 재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 방문에 뒤이어 결과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하는 서한을 제출하였다. 거기에는 “차후의 투자풍토는 투자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장기적인 결단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으며 채무불이행은 “인도네시아와 우리들이 장래에 같이 일을 하는 능력을 손상시키게 될 것이다”라고 이어지고 있다.

1999년 8월 말 미국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전력문제의 현안해결을 위해 4억달러의 차관을 공여할 때 이를 중지시키지 못하였다. 한 미국관리는 그 당시에 “나는 그들이 잘못 판단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들이 후퇴하리라 기대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 9. 미묘한 미국정부의 태도

그러나 그것이 미국과 다른 외국정부들이 취한 조치의 전부이다. 전력문제 분쟁에 대한 미국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워싱턴당국이 위기에 몰려 있는 인도네시아의 경제가 더욱 손상되었을 때 야기될 위험을 각오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1999년 8월에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캘리포니아 에너지(캘에너지)는 PLN에 대한 5억 달러의 증채에서 이겼지만 PLN은 지불을 거부하였고 미국정부는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은행측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으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 “수출신용기관들이 자주 ‘인도네시아에 한푼도 빌려주지 않겠다’고 되풀이해서 공언하고 있으나 그들은 역시 거래를 본업으로 하는 조직이다”라고 PLN의 스로카씨는 말한다. “만일 몇 년 내에 여기에 좋은 거래가 생겼을 때, 당신은 GE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그는 덧붙여 말하고 있다.

(자료: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9.10.21)